

여수 밤바다 풍광 85m 높이서 한눈에

에메랄드빛 바다와 보석 같은 다도해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여수 해상 케이블카(조감도) 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3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돌산읍 우두리 돌산공원과 자산공원을 잇는 길이 1.5km의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현재 공정률 72%를 보이고 있다. 사업자인 여수포마(주) 측은 오는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투명재질 밑바닥 바다 한눈에=바다 위를 통과하는 케이블카로는 전국 최초인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세계 '4대 미항(美港) 여수' 이미지를 걸맞은 대표 관광시설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1.5km 전체 구간중 700m 구간이 해상을 가로지르는데 85m 높이의 상공에서 오동도와 여수 세계 박람회장 등을 조망할 수 있어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케이블 카는 8인승(일반형) 40대와 5인승(크리스탈) 10대 등 총 50여 대가 운행된다. 이 가운데 10대는 국내 최초로 개발 경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바닥을 투명한 재질(크리스탈)로 만들었다. 탑승시간은 왕복 20분이 소요

여수포마, 320억원 들여 돌산공원~자산공원 1.5km 해상 케이블카 6월 말 완공

되며, 수송능력은 시간당 1300명이다. 오전 9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행된다. 이용요금(성인기준)은 8인승 1만3000원, 5인승 2만원으로 예정하고 있다.

여수포마 측은 현재 피쉬 타워(교량지주) 조립을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공사 기간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여수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에 대비해 지난 2009년 여수포마와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케이블카 공사로 인한 소음, 지가(地價)하락 등을 호소하는 고질적 민원 등 갖가지

이슈가 복합돼 공사가 중단돼 결국 사업자가 면허를 자진반납하는 사태까지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착공에 들어간 해상 케이블카 사업은 공사기간 연장과 건축물 면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6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1천만명 관광객 유치 일조 기대=해상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여수시는 전국 최초 해상 케이블카가 지속적인 '1000만명 관광객 시대' 유지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타 도시와 차별화된 해상 케이블카가 본격적으로 운행되면 여수 밤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하늘에서 조망할 수 있게 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관광객 추이를 지켜본 후 당초 계획했던 오동도 구간까지 추가 연결할지 여부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동도 구간이 개통되면 매년 300만명의 관광객이 해상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이라는 용역조사결과 또한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수포마 추동연 대표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내최초 해상 케이블카 정상개통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1000만 관광객 여수시대에도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청화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 '유자골 고흥한우' 통합브랜드 출원

협업체 결성 운영키로

난립했던 고흥군 한우 브랜드가 '유자골 고흥한우' 통합됐다.

고흥군은 최근 군 상황실에서 축산발전 대책 협의회를 열고 '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 공동사용을 결정했다.

또 협의회는 고흥군과 축협·한우협회·고흥한우 명품화사업단·조사료 유통센터 등의 컨트론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협업체 기구를 결성·운영하기로 했다.

고흥한우 브랜드는 지난 1999년에 '고흥 유자골 한우' 브랜드로 등록했으나 유사 브랜드 난립과 변별력 부족 등으로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관리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월 특허청에 '유자골 고흥한우'로 브랜드 명칭을 변경 출원하고, 관내 모든 한우 관련 단체들도 통합브랜드



를 사용해 한우 산업발전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군은 올해부터 연간 1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최고의 조사료 재배면적(4644ha)을 확보하는 한편 조사료 유통센터와 고흥한우 명품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 한우는 지난 2012년에 '지리적 표시(제 83호) 등록을 마쳤다.

2013년 축산물 등급 판정결과 1+ A 등급이 28%로 사육기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u@kwangju.co.kr



'사랑의 눈맞춤' 점심배식 봉사

나주 경향서 금성지구대대장 정일부는 최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나주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눈맞춤' 점심배식 지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n@kwangju.co.kr

“하천 건천화 방지로 비점오염원 줄인다”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 강진서 포럼

(제)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원장 정도영)은 10일 강진군 성전면 환경산업진흥원 세미나실에서 비점(非點汚染)오염 저감기술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2차 환경산업육성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환경부, 전남도, 영산강유역 환경청, 비점오염 관리기

술연구단과 비점오염 관련 기업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주)CSE 오장욱 팀장은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통해 비점오염원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영산강유역청 신철 주무관은 유역청에서 추진중인 녹색일자리 창

? 비점오염=오염원의 배출 지점을 특정할 수 없이 불특정 다수 또는 지역의 전체 오염원 배출에 의한 오염. 농경지의 농약과 비료 살포, 토양 침식 등에 의한 하천 오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출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GIST 국제환경연구소 나진성 박사

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 관리의 중요성과 저감기술 방법을 제안했다.

공주대의 김이형 교수는 '비점오염원 저감기술'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비점 오염원과 강우 유출수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비점오염원은 강우시 지표면으로부터 배출되기 때문에 대응책 마

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비점오염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도영 전남도 환경산업진흥원장은 "비점오염 저감기술에 관한 국내외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환경산업진흥원이 비점오염저감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양 '불안전요소 신고센터' 개소

전국 최초... 안전사고 예방 첨병

전국 최초로 안전사고 예방의 첨병 역할을 할 '불안전요소 신고센터'가 광양에 문을 열었다.

광양시는 지난 9일 광양시청 안전총괄과에서 '불안전요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현판식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나섰다.

신고센터는 지역내 안전 위해 요인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불안전요소를 제보받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 방문이나 우편, 전화, 인터넷 제보가 가능하다.

온라인 제보는 안전 모니터봉사단(www.safetyguard.kr)과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재난장후 정보(www.nema.go.kr)에 제보를 하면 시가 모니터링해 사전 협의와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오프라인 제보는 광양시 안전총괄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광양시는 제보내용을 해당 부서와 기관에 통보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제보자에게 추진상황 통보와 월 1회 실태점검, 연말 평가분석을 통해 안전사고 제로화에 도전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www.hcnara.co.kr

모두 가능합니다.

성공의 비결! 황철에 투자 하십시오. 투자자 상담 환영!

✓ 처음

식당을 창업 하시는 사장님

✓ 기존

식당을 운영 하시는 사장님

가맹 문의 061 864 5788

수원점성업중

소태점성업중